

중견건설사, 연말 분양대전 ‘후끈’

12월 ‘알짜 분양’ 봇물

우수한 입지 선정·주택설계 차별화
높은 청약 경쟁률...1순위 마감신화
연말 호반·동문 등 대규모 물량 분양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연말 막판 분양대전이 남았다!”

연말 분위기가 달아올라 한 해를 정리하는 분위기지만 주택시장은 여전히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부동산 호황과 함께 주택전문건설사의 약진이 두드러진 가운데 연말 분양 대기 중인 주택전문건설사 물량이 막판 수요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중견전문건설사들 우수한 입지·설계 차별화 등 앞세워 약진

최근 주택전문건설사들은 주요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공급에 박차를 가하며 대형건설사들의 분양 단지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는 등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

부동산리서치업체 더피알의 자료에 따르면 올 11월까지 전국에서 분양된 청약경쟁률 상위 30개 단지 중 16개 단지가 중견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지 중 14개 단지는 100대 10이상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에 머무르거나 마감을 맞았다. 또 10~11월 김포 한강신도시에서는 대형건설사 분양단지가 줄줄이 청약 미달된 것에 반해 이랜드건설의 ‘이랜드 타운힐스’, 한신공영의 ‘운양역 한신휴 더 테라스’는 각각 평균 9대 1, 33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됐다.

전문가들은 중견 건설사들의 분양 성공 이유로 입지선정과 설계 차별화를 꼽는다. 철저한 시장 분석을 통해 우수한 입지를 선점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내부 공간활용 등 주택설계에서 차별화하려는 시도가 대형사보다 활발히 진행한 덕이다.



연말 주택전문 중견건설사들의 대규모 분양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우수한 입지선정과 설계 차별화를 앞세워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사진은 호반건설이 이달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분양하는 ‘송파호반베르디움 더 파스트’ 조감도.

사진제공 | 호반건설

●호반·동문·신구·효성 등 연말 대거분양 나서
이처럼 중견사의 약진이 활발한 가운데 앞으로 연말 남아있는 분양 물량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호반건설은 서울에서 첫 분양을 한다. 서울 강남권 택지지구에 이달 ‘송파 호반베르디움 더파스트’를 공급한다. 이 단지는 송파구 오금동 101-5일대(오금공공택지지구 3블록)에 지하 2층~지상 20층 3개 동 총 220가구다. 전용면적 101㎡ 단일주택형으로 구성된다. 단지 바로 앞에 거여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도보 통학을 할 수 있다. 그 외 보인고등학교, 송파도서관, 반이동생태학습관 등도 지척에 자리해 자녀 양육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강남재건축 분양단지가 3.3㎡당 평균 분양가 4000만원 웃돌고 있는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외에도 시흥시 목감지구의 첫 중대형 시흥 목감 호반베르디움 3차 415가구, 경남 진해남문 호반베르디움 944가구를 각각 분양한다.

동문건설은 울산KTX역세권도시개발구역에서 ‘울산 KTX신도시 동문 굿모닝힐’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2층 지상 23~38층, 아파트 503가구, 전용면적 84~125㎡로 구성되며 오피스텔 80실, 상가시설까지 들어서는 복합주거단지로 이뤄진다. 이 아파트의 입지는 연양 주요 생활권과 KTX울산역을 잇는 길목에 위치해

각종 생활시설과 고속도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 KTX울산역과 35번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가 개통될 예정이다.

신구건설은 이달 충남 부여에 ‘부여 센트럴 휴먼하임’을 분양한다. 전용면적 59~84㎡, 지하 1층~지상 20층, 11개동, 611가구로 부여군 최대 규모다. 중소형 면적으로 정남향·4베이(일부 제외)로 설계됐으며, 부여 최고의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된다. 도보생활권 내에 규암초·백제중·부여정보고가 자리잡고 있으며, 롯데리조트·롯데아울렛·하나로마트 등도 근거리에 있다.

이밖에 효성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 삼오맨션을 재건축해 짓는 ‘범어동 효성해링턴 플래이스’를 이달 공급할 예정이고 대광건설은 청라국제도시 A2블록에 ‘청라 대광로제비앙’을 분양한다. (주)세정건설은 충북 음성군에 ‘대소IC 웰메이트타운’을, 문장건설은 경북 포항시 초곡지구에서 ‘포항 초곡지구 지엔하임’을 분양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중견건설사들은 자체 경쟁력을 갖춰 대형사 수준을 뛰어 넘는 상품으로 수요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며 “대형사들이 서울 등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에 집중한 반면 중견사들은 수도권이나 지방 알짜 택지지구에 분양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세호 기자 sol@donga.com

하이원 리조트 “해발 1340m서도 무료 와이파이 OK”

스키장·콘도 전역 무선인터넷망 구축

강원도 정선 하이원 리조트는 15/16 겨울시즌을 맞아 스키장과 콘도 등 리조트 전역에서 고객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무선인터넷망 구축을 완료했다.

하이원 콘도의 전 객실과 체크인센터, 스키하우스 및 스키장 내 식음업장인 벨리, 마운틴 허브 카페테리아 건물 등의 실내와 야외에서 무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이미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던 강원랜드호텔, 컨

벤션호텔, 하이원 호텔을 포함해 이번 서비스 지역 확대로 이용객들은 하이원 리조트 전역에서 무료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해발 1340m의 마운틴탑 레스토랑에서도 스키장에서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무료로 SNS에 올릴 수 있게 됐다. 인터넷 사용을 원하는 고객들은 컴퓨터 및 스마트폰의 와이파이(Wi-Fi) 설정에서 인증절차 없이 ‘High1_Guest’에 연결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김재범 전문가 oldfield@donga.com

마술과 함께 배우는 흰 돌고래 ‘벨루가 이야기’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에듀 스마일’ 운영

서울 잠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겨울방학을 맞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에듀 스마일’을 운영한다.

에듀 스마일은 여름에 실시한 ‘에듀 바캉스’에 이어 아이들이 쉽고 신나게 해양과학을 접할 수 있도록 준비한 방향맞이 교육 프로그램이다. 깊이 있게 해양생물을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과 해양과학 외에 마술, 미술 등 다양한 분야를 접목해 흥미를 유발하는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했다. 에듀 스마일은 5일 ‘매지 벨루가’

와 ‘마린 패밀리’를 시작으로 2월28일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매지 벨루가는 벨루가 이야기를 마술을 배우면서 익히는 프로그램이다.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마린 패밀리는 검진표를 이용해 자신의 체질과 맞는 바다향과 미생물을 선택해 방향제, 로션, 비누 등 특별한 아쿠아 제품을 만들 수 있다.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21일부터는 무선가이드시스템을 이용한 아쿠아 가이드와 떠나는 각종 투어프로그램을 비롯해 미래 해양전문가를 위한 ‘해양과학 교실’, ‘연간회원 해양 창의교실’ 등을 순차적으로 오픈한다. 김재범 전문가



서울 잠실 롯데월드를 아레나 광장에서 전시중인 롯데월드타워의 철골 대들보에 새해 소원 및 덕담을 쓰고 있는 방문객들. 7m 길이의 H빔 2세트로 구성된 철골 대들보는 22일 상량식에서 롯데월드타워의 123층에 올려질 예정이다.

사진제공 | 롯데물산

롯데월드타워 “대들보에 소망 적으세요”

롯데월드타워(제2롯데월드)는 22일 상량식(123층 대들보 철골을 올리는 행사)을 앞두고 13일까지 롯데월드를 ‘아레나 광장’에서 상량 대들보를 전시한다. 상량 대들보는 길이 7m의 H빔 2세트를 흰색으로 도장해 롯데월드를 방문객은 자유롭게 롯데월드타워에 대한 염원이

나 새해 소망 등을 쓸 수 있다. 13일까지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상량 대들보는 22일 상량식 때 국내 최대 규모 64톤급 타워크레인으로 롯데월드타워 123층에 올려져 대들보 철골로 사용될 예정이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내년 전국 아파트 27만3792가구 입주...올해보다 3.6% ↑

내년 전국 444개 새 아파트 단지에서 총 27만3792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는 올 26만4225가구보다 3.6%(9567가구) 늘어난 것이다.

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분양 예정인 27만여 가구 중 서울에선 총 2만3665가구가 입주해 올해(2만1천84가구)보다 약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인천은 올해보다 37.2% 감소한 7618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경우 화성 동탄2신도시·평택·용인 등 입주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18.5% 늘어난 8만2천

90가구가 입주한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의 세입자들이 ‘경기도행’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을 살펴보면 부산은 내년 1만1천61가구가 입주해 올보다 46.5% 감소하고, 울산 또한 3049가구로 올보다 67.7% 줄어든다. 대구시는 입주물량이 올해 1만4076가구에서 내년에는 2만7298가구로 94% 가까이 증가해 집값 상승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집값 강세를 보인 광주시도 내년에는 입주 예정 물량(1만1천159가구)이 올해(5천752가구)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한다.

세종시는 올해 1만7381가구에서 내년에는 7274가구로 1만 가구 감소한다. 또 충남지역은 올해 1만2422가구에서 내년에는 2만1506가구로 72.1% 증가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주택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다 내년에는 경기도의 입주물량이 10만4000여 가구에 이르는 등 전국의 아파트 입주가 다시 33만 가구를 넘어서면서 공급도 넉넉해 집값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세호 기자

주연료 / 장작, 폐목재, 나무목재, 펠릿, 갈탄, 왕겨탄, 톱밥, 박스, 휴지도 싸~악!

다목적난로 40%할인, 난방비 최대 80%절감

히트 상품

월 33,000원

원통형

- 높이 92
- 가로 48
- 세로 48
- 무게 46
- 두께 3.3T
- 투입구
- 세로 20
- 가로 30
- 50m²~182m²

2016년형 공장직판세일!

선착순 300분 한정 6만원 상당 받침대 증정

난로연료 20kg 단위 배송!

펠릿 및 화목난로 전용 주문처 02-3472-1122

월 41,500원

원통형

- 높이 98
- 가로 53
- 세로 53
- 무게 55
- 두께 3.3T
- 투입구
- 세로 20
- 가로 30
- 50m²~264m²

전국 어느곳이든 신속배송

난방도하고 더운물도 데우고! 각종 요리도 하고 고구마,감자,밤,땅콩도 굽는다!

우성종합강판 (주)애니텍 전국전화 1522-3070 전국취급점 및 철물점 납품 환영